

나일론/면 혼방섬유용 비할로젠계 난연가공제

Alexium사는 나일론/면 혼방섬유용 비할로젠계 난연가공제를 출시한다. 이 가공제는 우수한 난연성능뿐만 아니라 세탁내구성이 뛰어나 반복적인 세탁 후에도 난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폴리에스터 섬유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이번에 출시될 난연가공제는 Alexium사의 Nycolon technology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로 용도전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난연가공제는 Nycolon 제품 시리즈로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난연가공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Alexium사에 따르면, 할로젠계 난연가공제는 데카브롬과 같은 성분때문에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Nycolon technology연구팀에서는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침출성 할로젠계 난연제를 주로 개발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나일론/면 혼방섬유용 비할로젠계 난연가공제는 비할로젠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에서 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난연가공제는 최대 50 %의 나일론섬유 혼용제품에도 효과가 있으며, 가공처리후, 수직난연시험에서는 용융적하현상 없이 우수한 난연성능을 나타내고, 세탁내구성도 우수하여 50회 세탁 후에도 성능이 유지된다.

최근에는 섬유가공분야에서 용도전개를 시키고자 폴리에스터/면 혼방소재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섬유는 시장점유율이 72 %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섬유이며, 그 동안 섬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서 저렴한 생산가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ATA Textile Online Daily Market News 18/11/2013